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0월 6일(일) 제1510호



온누리교회 창립 39주년

10월 5~6일 국내 11개 캠퍼스 '창립주일감사예배'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10월 5일(토)과 6일(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9주년이다. 이 기쁨과 감사, 사랑을 성도와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나눈다. 10월 5-6일 온누리교회 창립 39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설교 영상을 각 캠퍼스에 송출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토요주일 1-4부 예배, 일요일 4부 예배 이후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고, 일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의 국수를 대접한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다섯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사역하고 있다.

10월 5일(토)과 6일(일)은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기도 하다. 성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과 돌봄에 동참하고, 매주 교회 주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에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10월 5일 오전 6시부터 6일 오후 10시까지 이어진다(캠퍼스는 상황에 맞게 진행). 따라서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캠페인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주차장은 주차

카드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차량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0월 6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안연환 팀장(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과 돌봄,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며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 주관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환경과 이웃을 배려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이날 서빙고온누리교회 한식당 입구에서 '잔반 줄이기 캠페인'도 한다. 잔반을 줄여서 생산, 운송,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물, 노동력 절약과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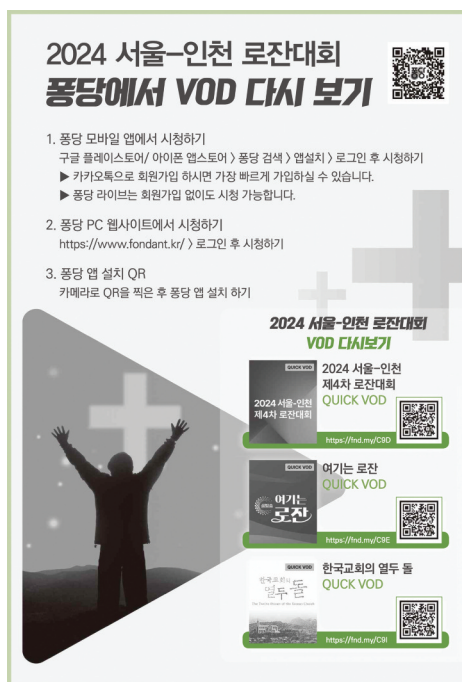
다시 보는 그 은혜와 감동!

제4차 로잔대회 VOD 다시 보기 서비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의 은혜와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 '제4차 로잔대회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로잔대회 VOD 다시 보기는 기독교 OTT '풍당' 앱이나 홈페이지(fondant.kr)에서 할 수 있다.

제4차 로잔대회 개회예배부터 오전, 오후 집회와 강의, 폐회예배까지 모두 시청할 수 있다. '생방송 여기는 로잔', 한국 선교 140년 역사를 소개하는 창작 뮤지컬 '한국 교회의 열두 돌'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2024년 9월 29일 ▶ 주안장로교회 주보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함께! 미디어 선교'

10월 19~20일 CGN 정기후원 행사

CGN 정기후원 행사가 오는 10월 19일(토)과 20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CGN 정기후원 행사는 'CGN 후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함께!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CGN 정기후원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CGN 웹사이트,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후원자는 증액도 가능하다. 자녀와 가족, 전도대상자 이름으로도 CGN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전진국 대표(CGN)는 "선교콘텐츠 제작에 앞장서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미디어 사역에 전력해 온 CGN이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96-2243(CGN)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

10월 26일 주제강의 및 패널 토의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개최한다.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10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문제인식 및 공유(소강의 및 발표회), 우리의 미래(주제강의), 실천방안 구체화(패널 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제인식 및 공유'에서는 대학청년주제공모 발표, 공동체 우수 사례 공유, 청년세대 전도 등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를 한다.

'우리의 미래'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생명력 있는 미래 공동체 모습', 박태성 집사 데이터 및 설문 분석(온누리교회의 현황 및 미래), 대학청년 우수공모작 발표 및 시상한다.

'실천방안 구체화'에서는 '교회의 미래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리더십 패널 토의를 한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가 진행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강부호 목사

성경에 종종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성경에서는 주로 ‘온 마음을 다해’로 번역했습니다. 전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교혼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시 119:2).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 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대하 16:9).

‘그 마음이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신 6:5).

전심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를 순서대로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모두 동원된 표현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힘을 다해서’인 것 같습니다. ‘힘’에는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원도 포함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휘, 권한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

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마 7:7~8).

한 번 구하고 중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간절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찾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두드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신 4:29).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갈증은 귀한 것입니다. 그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동원하고, 온 영혼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음을 쏟아 부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지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붓는 것과 생각을 모두 동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8~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두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 있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심을 쏟아 붓지 않았던

전심으로

신명기 6:5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도 포기한 것 등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를 위해서 문화적인 극복과 관심을 갖기 위해서도 전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사도행전〉1장 8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입니다. 증인이 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성령님을 존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담대한 증인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또 우리는 함께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을 원하면 자신들은 잊히고, 그리스도만 기억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다는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결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신 6:5~7).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야 할 또 다른 면은 자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차세대 부서에도 가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 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익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그분이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그분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태도가 내게 있다면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 없는 마음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사용하시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죄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일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관심이 가득해질 때 그분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떼어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을 공격했는데”(왕하 10:31~32).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쏟아 붓지 못하면 그분이 주셨던 영역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명세하지만 말감에 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과”(슥 1:5).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마음이 아닙니다. 전심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을 없애 버리겠다”(슥 1:6).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축복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교육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교육 단상

얼마 전 여름방학을 맞아 지인의 사업장이 있는 진주를 방문했다. 진주성을 지켰던 김시민 장군과 주민들의 이야기,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김시민 장군을 도와 진주성 밖에서 왜군과 싸운 유승인 장군 이야기, 남강에서 왜장을 유인해 함께 산화한 논개의 유적은 한편의 역사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해설사가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순간 그 현장에 있는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표현하기 어려운 눈물방울이 가슴을 적시기도 했다. 나라의 큰일이 있을 때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로움과 고결함을 지켰던 선조들의 자태가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눈을 돌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출세, 권력과 돈을 위해서는 나라도, 화사도, 가족도, 정과 사랑도 쉽게 저버리는 모습이 뉴스를 장식한다. 역장이 무너지고 절망과 위기가 마음을 후린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전에 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회복 불능의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고 싶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하신다(사 56:1-2).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라!”는 말씀에 얼마나 엄중함을 느끼는가? 자녀들은 가정생활과 부모의 세계관을 통해 습득하고 전해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앙 여정과 교단생활, 상담이나 사역

중에 듣는 이야기 대부분이 자녀와의 갈등 문제다. 자녀의 재능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부모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이다. 지금 다시 양육하려면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후회하는 모습들이다. 한 사람에게 부여된 소중한 가치(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과 일)를 왜 허무하게 취급하는 것일까? 일방적인 가치의 잣대로 직업 혹은 소유한 재산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갈등하고, 설 자리를 잃고 방황하며, 실패자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일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부부, 자녀들, 공동체 구성원들, 사역을 함께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세워진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고전 1:5).

둘째,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다(사 58:6-7). 우연히 접했는데 감동한 책이 있다. <나무를 심은 사람>(장 지오노)이다. 어느 늙은 양치기의 외로운 노력으로 프로방스의 황무지가 거대한 숲으로 바뀐 기적 같은 실화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킨 책이다. 이들을 병으로 잃고 아내도 떠난 상태, 희망도 미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주인공은 돌로 만든 단단한 집, 잘 정돈된 살림살이, 눈에 띄지 않게 세심하게 기워진 옷,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표정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잘 고른 도토리를 아무 말 없이 황무지에 심으면서 남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희생하며 몇십 년을 일관되게 일했다. 황무지가 물이 흘러가는 거대한 숲으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작은 떡갈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꾸고 기다려줄 때 거대한 숲처럼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 틀림없다.

오랜 투병 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교단으로 인도하셨다. 1983년 교단에 첫발을 내딛게 된 이후 오늘까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통해 배우는 게 많다. 지나간 세월만큼 교육 환경이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생각도 달라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이기주의의 극한으로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아파한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웃과 약자들에 대한 꿈을 펼쳐나가는 이야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아동 전화 도시’를 만들고 싶은 학생,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와 윤리적 책임 의식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환경과 공동체 의식에 접목하고 싶은 학생,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 등 제각기 다른 모양의 이웃사랑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긴 꿈 이야기를 들으면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재건하라고

하신다(사 61:4).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이 부모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때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삶에서 나타나는 고비마다 빛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아웃리치를 떠날 때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아웃리치를 통해 긍휼한 마음을 간직하고, 함께 섬길 때 꿈을 발견하는 학생이 있었다. 같은 마음과 비전을 품은 반려자를 만난 청년도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의료선교를 다녔는데, 입시를 목전에 둔 고교 시절에도 함께 섬긴 귀한 젊은이도 있었다. 이 모습들이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이요, 미래가 되었다.

이런 일들을 실천할 때마다 여전히 장벽이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은 예전에 패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패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사 61:4)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황병원 장로
(양천공동체)

특별기고

목적 없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 애틀랜틱>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교육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논문을 쓰는 학생’과 ‘그런 학생을 잡기 위해 고안된 인공지능’ 사이에서 일종의 공상과학소설 같은 현실에 갇혀 있다고 했다. 교사가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더 좋은 도구가 나올 때마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가 등장한다. 철자가 틀린 단어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워드 프로세서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적어도 그때는 학생들이 직접 글을 써야 했다. 교사가 표절을 의심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최신 AI와 ChatGPT를 사용해서 작성된 글들은 고유성을 지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컴퓨터가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사도 인위적인 부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대신 채점해 줄 수 있는데 왜 한 번에 수십 개의 논문을 채점하겠는가? 봇(bot)이 작성하고, 봇이 채점하는 논문이 사실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비디오 게임을 스스로 플레이하도록 프로그래밍한 다음 승리를 주

장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교육에서 계속되는 위기가 가장 최근에 표현된 형태일 뿐이다. 스티브 가버의 명저 <신실함의 구조>(Fabric of Faithfulness)에 인용된 듀크대학교 학생이 적절하게 묘사했던 위기다.

“우리는 누군가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소위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일련의 후프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이 과제를 ‘교육을 받기 위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교육자가 교육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교육이 진리를 확인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마케팅하고 판매해야 할 상품으로 여겨진다. 교사들이 길을 잃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육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에만 몰두하는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 철로에서 너트와 볼트를 훔치고 있는데,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에 보내서 교육이 끝나면

그 사람은 철로 전체를 훔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목적이 없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틀이 없는 교육은 사람들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인 <인간 폐지>의 첫 글인 ‘가슴이 없는 사람들’의 핵심 내용이다. C.S. 루이스는 교육을 탈도덕화하려는 시도가 악덕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덕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일종의 소름 끼치는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기관을 제거하고 기능만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슴이 없는 인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미덕과 기업가 정신을 기대한다. 우리는 명예를 비웃고 우리 가운데 반역자를 발견하면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말을 거세하고는 새끼를 낳라고 명령한다.”

T.S. 엘리엇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교육이 데이터와 기술을 습득하는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닐 포스트먼은 이렇게 말했다.

“현대의 세속 교육은 진저 로저스나 노먼 메일러가 누구인지 가르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지적 중심이 없어서 실패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사실 ‘학습 과정’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과목들을 뒤섞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교육받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헌신과 관점은 없지만, 시장성 있는 기술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교육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학교가 따라왔다. 배움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문해력에 목적이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적에 기초할 때 배움이 신성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보살핌 아래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창조물을 누리도록 만드셨다.

/ 존 스톤스트리트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 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팀 패짓 원문: breakpoint(20240910)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평가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는 21세기 들어와 서구, 북미기독교 쇠퇴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기독교의 선교 동력을 확인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참신한 지구촌 선교 축제였다.

제4차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9월 22일~28일 7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이번 대회는 로잔운동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미완성으로 남은 복음화 사역을 함께 갱신하고,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확산을 위해 헌신과 협업을 다진 대회였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21세기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인 세기적 선교 모임이었다. 신도시 송도의 거대한 새 시설 국제대회장에서 첨단 미디어가 동원돼 매시간 강연과 패널토의가 지구촌을 향하여 생중계되고, 시작과 중간, 끝에 찬양과 기도가 동반되었다. 헌신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모습을 알리는 큰 국위 선양의 모임이었다. 로잔대회 참관인으로 제4차 로잔대회를 지켜보면서 여러 신학 동료들과 함께 7일간 대회에서 다음 같은 감회를 느꼈다.

국제적 선교 모임 ‘제4차 로잔대회’

첫째, 21세기 들어와 기독교 선교의 동력을 재점화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국제적 선교 모임이었다. 매일 오전에 성경강해 내지 선교 현장 이야기와 간증이 있었다. 월요일에는 성령 사역의 지속성이 선교 이야기로 보고되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에서 그대로 지속한다고 보고되었고, 특히 1907년 평양부흥에서 성령의 지속 사역이 보고되었다. 화요일에는 세계 각지에서 일하는 선교공동체 보고가 있었다. 디지털 청년세대인 Z세대에 대한 보고가 새로웠다.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Z세대는 협업 공간을 선호하고, 건강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요구하며, 상사들의 멘토링, 진정성, 투명성, 구조화된 업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되었다. 수요일에는 박애받는 지구촌 교회의 보고가 있었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로잔 5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로잔 인사들은 “로잔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로잔을 통해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겸손, 우정, 기도, 연구, 협력적 관계, 소망 등 로잔 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작은 겸손이며 끝은 소망”이라면서 “우리 세대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하고, 신학적 이론은 선교라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했다. 다 함께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 복음을 전한다”(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는 로잔의 비전을 외쳤다. 참신한 인상을 남겼다.

목요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일터 사역 보고가 있었다. 이날 밤은 한국 교회의 밤으로 한국 선교의 시작, 초창기 교회의 자립과 성장 및 정착, 북한 교회의 박해, 남한 교회의 큰 부흥과 선교적 교회로 부흥 발전이 소개되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한국 교회의 지구촌적 사명을 일깨우는 밤이었다. 금요일에는 섬기는 지도력이 보고되었다. 이슬람권, 힌두교권, 세속문화권에서 야기되는 박해와 갈등에 관한 해결 방법은 화해(reconciliation)와 용서(forgiveness)라는 사례가 패널 토의와 나눔으로 제시되었다. 토요일 마지막 날에는 대회 기간 미술 작가들이 영감을 받아 그린 추수하는 농부 등의 그림 다섯 점을 공개하고, 그 의미 등을 나눴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보고되었다. 아프리카 교회(특히 마다가스카르 교회 등이 구체적인 예)가 2025년 모든 필요로 하는 종족에게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례가 감명 깊게 보고되었다. 마지막 날 오전 제4차 로잔대회 협업 행동 서약식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이 각자 서약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약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글로벌 교회와 함께하고,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시너지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협력적 약속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선교 동력을 나누다!

둘째, 서구 교회의 쇠퇴 가운데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동

력을 나누었다. 오늘날 서구 교회가 기독교 이후 시대를 맞이하여 선교 동력이 떨어지고 쇠퇴하는 가운데 지구촌 남반부(아프리카, 남미 등)와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남미 브라질 상파울로교회는 성경 번역과 선교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통합선교(integral mission)를 추진해 남미 미지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라틴아메리카복음주의연맹(AELATINA)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주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약 1억6천만 명의 복음주의자를 대표한다고 사례 보고했다. 아프리카는 21세기 세계 선교 영역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경 번역 분야는 분명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교회도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 마음을 쏟는 독실한 남녀를 배출해 성경을 더욱 풍성한 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중국 교회도 시진핑 정권 아래서 박해받으면서 특히 지하교회는 중국 내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로잔대회는 2026년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Young Leder 2026’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세계 복음화에 각자의 몫을 담당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복음과 성경을 중심으로!

셋째, 로잔대회는 복음의 중심성, 신실한 성경 읽기, 복음 전파(교회의 선교)에 대한 헌신을 갱신하였다. 로잔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

교회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라는 주제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였다.

<서울선언> 제1항에는 복음의 능력이 강조되었다. 복음은 하나의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좋은 소식이고,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선언되었다. 그의 십자가 대속과 화해와 부활이 선언되었다. 그를 믿으므로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형상인 인간은 그 죄와 부패성에서 구원받는다.

<서울선언> 제2항에는 성경이 운동의 기준으로 천명되었다. 로잔대회는 성경을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받으며 교회, 선교,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원칙으로 삼으며, 로잔운동의 기동으로 삼으며 신실한 성경 읽기를 강조하였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선포라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성경의 목적은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을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신실하게 읽고 살아야 함을 재천명하였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로잔대회는 기독교의 사도적 전승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적 친교 모임

넷째, 근본주의의 독선과 자유주의의 이탈에서 벗어난 성경적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적 친교모임이었다. 로잔대회는 찬양과 기도와 성경 강해로 시작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한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공동협업 서약식과 성찬식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 로잔대회 반대 목회자연합이 비난한 동성애 허용, 신사도 운동, 종교다원주의, WCC의 인간화 선교에 대해 동조하는 언급이나 발표는 일체 없었다.

<서울선언> 67항~70항은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그런데 로잔 반대자들은 대회 현장에까지 와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과 시위를 하면서 대회를 휘방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로잔 참가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로잔대회 폐회식에는 세계 지도자들이 복음주의 선교를 위한 협력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잔대회가 제시한 25과제의 실천을 위한 370개 협력팀이 구성되었으며, 협업 행동 헌신(Collaborative Action Commitment)을 다짐하였다.

한국의 로잔대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와 일본 로잔대표 마사노리 쿠라사와 목사(Masanori Kurasawa, 전 동경크리스천대학 총장)가 공동으로 성찬을 집례한 것은 가해자 일본과 피해자 한국 사이에 놓여 있는 과거사와 역사적 갈등에 대한 화해의 상징으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의미있게 다가왔다(계속).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주요 논의 결과 및 향후 과제



한중희 목사
(두란노국제선교회
(TIM) 본부장)

2024년 9월 22~2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전 세계 200여 개 국 이상에서 총 1만여 명(오프라인 5,300여 명, 온라인 5천여 명)이 참석하며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복음주의 최대 회

의(Congress)인 로잔은 3차 케이프타운 후 15년, 1차 로잔 이후 50년이 되어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제4차 로잔대회는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남겼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task)가 무엇인가?

서울 로잔대회 회의 구성과 목표

로잔대회는 지난 4월 23일 발표된 <대사명상 상황보고서>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사명상상황보고서(이하 <대사명보고서>)>와 <서울선언> 2개가 로잔대회의 공식 문서다. <대사명보고서>는 2050년을 바라보며 다중심적 기독교(polycentric Christianity), 인간됨, 디지털시대 선교 등 10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2050년까지 20억으로 늘어날 중산층, 현 10억에서 2050년까지 21억 명으로 늘어날 시니어 선교 등 글로벌 선교의 변화에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together) 협업(collaboration)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사명보고서>의 25개 협업 갭(GAP)은 매일 오후 그룹 논의에서 다루며 사실상 핵심 논의 이슈가 되었다. 25개 주제는 ‘노인, 새 중산층, 다음세대, 이슬람, 세속주의, 최하전도종족(least reached peoples), 디지털시대 말씀, 디지털시대 교회 양태, 디지털시대 제자도, 디지털시대 전도, AI와 트랜스휴머니즘, 성정체성과 성별, 총체적 건강, 다중심적 선교, 다중심적 자원동원, 정직성과 반부패, 통합적 영성과 선교, 리더십개발, 이동하는 사람(난민/이주민), 도시공동체, 디지털 공동체, 종족주의/인종차별주의, 기독교/급진적 정치와 종교적 자유, 창조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 신뢰와 기독교의 영향력’이다.

매일 오전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과 성령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이슈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이슈/지역네트워크 및 GAP 논의를 하고, 저녁에는 예배와 특별순서(50주년, 한국의 밤)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사이사이 ‘성령강림, 선교공동체, 핍박과 선교, 일터사역과 세계 선교, 섬기는 리더십’ 발제를 듣고 테이블별 열띤 토론의 시간도 있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의 목표는 새로운 선교환경에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함께 협업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발표 한 <서울선언>

로잔대회 마지막 날 발표한 <서울선언>은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 등 7개 큰 주제 아래 97개 단락이 있다. 7개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귀결되며, 다른 6개가 복음을 떠받치고 있다. 특히 제1번을 “복음: 우리가 살고 전하는 이야기”로 해서 하나님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신 창조와 피조물 변혁의 약속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성취되었고, 주를 믿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선포하였다. 또 성경 중심 메시지는 복음이고, 성경은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며, 공동체 성경읽기(PRS)와 듣는 것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이슈별 논의 사항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다. <대사명보고서> 주요 GAP 중 하나로 포함 된 다중심적 선교는 앞으로 글로벌 또는 지역 차원에서 매우 활발

예배, 교제, 제자훈련 등 모든 교회 활동과 사역에서 낙망적 상황이었다(이동 없는 선교는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디지털기술로 새 예배를 여시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깨달음과 방법을 주셨다. 전 세계 사람들이 줌(Zoom)을 통해 사이버에서 만날 수 있기에 거기가 바로 땅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성정체성과 젠더다. <서울선언>은 성정체성, 결혼과 독신, 그리고 동성 성관계 등 3개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주제 아래 총 15개 단락에 걸쳐 성경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증(apologetics)적 선포는 앞으로 더욱 기성을 부릴 동성에 움직임에 대항할 수 있는 성경적이며, 창조 질서에 기초한 매우 중요한 대응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대응 논리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셨고, 성적지향성(sexuality) 왜곡에 탄식하시며, 개인이 성별(gender)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둘째,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인 언약 관계이다. 셋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했다. 따라서 죄악, 회개와 제자훈련 등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길 기대해야 한다.

12개의 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또 “한국 교회의 감사와 회개, 재헌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느껴진다”(홍콩 대표), “당신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다. 주를 더 진지하게 섬겨야 한다는 격려받았다. 한국 교회가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돕는 나라가 된 것 보았다. 아프리카인으로서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은 사람이 주는 도움보다 더 복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야 한다”(부르키나파소 대표) 등의 감상이 이어졌다.

<서울선언>의 북한/복음통일 단락(86번)에서는 분단된 남북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이 임해 언젠가 하나 되기를 기도한다. 기독교 형제자매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박해 종식을 촉구한다. 북한에서 방해나 두려움 없이 예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나타나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을 알도록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

앞으로의 과제와 우리의 기도

이번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주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Declare and Display)’는 적절하고 시의성이 있었다. 주체가 교회로, 모든 선교는 교회가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의 의미로는 ‘함께’(Together)는 ‘협업’(collaboration)으로 모든 사역은 혼자 하기 어렵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로잔대회를 관통하는 화두다. 또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을 통해 모든 사탄과 마귀를 멸하고(히 2:14, 요일 3:8), 죄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선포하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는 의미이다(마 2:11). ‘나타낸다’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달성한다는 것이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3중사역과 영적, 육체적 등 전인격적 총체적 구원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예 3:20), 말씀(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루시려는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라 하겠다(요 1:14).

<대사명보고서> 결론에 있는 것 같이 대사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를 깨닫고, 열방의 영원 구원을 위해 협업을 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온누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서울선언>에서 제기된 다중심적 선교 등 글로벌 선교과제를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서울선언>에서 제기된 다중심적 선교 등 글로벌 선교과제를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로 대변되는 서구 선교는 최근까지 신학이나 이론, 실제 집행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지난 케이프타운대회로부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교회와 선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선교 중심이 이동되었다고 서구, 글로벌 노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비서구권 다수세계(Majority World)는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역할(from mission on field to mission force)로 바뀌었으며, 이제 특정 지역만 중심이 아니라 모든 곳이 중심이 되어 각각 역량을 키워 함께 협업하자고 한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는 지난 5월 초 방콕에서 COALA(Christ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글로벌 사우스의 선교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 등 서구와도 계속해서 다중심적 협업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디지털시대 선교(디지털시대 말씀, 교회 양태, 제자도 및 전도)다. <대사명보고서> 여러 챕터에서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다루고, 어떠한 교회 형식이 필요하며, 제자훈련과 전도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넷째, 이슬람(GAP 논의요약)이다. 기독교와 MBB(무슬림배경 개종자)간 협업, MBB 역량 강화, 상황에 맞는 제자양육, 글로벌동원,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예수, 기도와 격려, 영적/육적 필요를 채우는 총체적 선교 등의 필요가 강조되었다. 덧붙여 MBB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동족을 전도하고, 제자를 훈련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의 결론에 공감했다.

다섯째, 난민 이주민 디아스포라다. 이동하는 사람들(People on the Move)이라는 제목으로 <대사명보고서>에도 있는 주제다. 박해를 피해 나온 난민,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이주민, 그리고 공동체의 장기적 이주와 정착에 해당하는 디아스포라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특히 무슬림 배경이 많기에, 체류자격, 자녀교육, 일자리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하나님의 흠없음과 이슬람의 한계로 인한 흔들림이 가정 단위의 회심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섯째, 다음세대다. 다음세대 동원이 강조되었다. 2026년 12월 6~12일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청년리더모임(YLG 2026)에 전 세계 많은 청년이 모여 자신들이 만들 미래 선교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6년 브라질 대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 교회와 선교, 북한 교인 핍박 종식, 복음 통일이다. 목요일 한국 교회에 대한

맛있는 말씀 해설

“...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 13:18)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 13:16~18).

〈요한계시록〉13장 18절 ‘짐승의 표’라 불리는 ‘666’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숫자를 종말에 등장할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과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짐승의 표’를 기술 발전이나 신체에 부착되는 표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바코드나 신용카드, RFID 칩 같은 기술이 짐승의 표와 연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일부 성도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종교지도자가 짐승으로 등장해 ‘666’이라는 숫자로 식별될 거라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본래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

한 추측에 불과하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경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13장에 등장하는 ‘666’이라는 숫자 역시 상징적인 언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666’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그 안에서 우

카이사르’를 계산하면 ‘666’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숫자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네로와 같은 폭압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이러한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로 자주 등장하는 반면,

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짐승의 표는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상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666’은 특정 기술이나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물질주의, 권력욕,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666’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가 발견해야 할 교훈을 찾아보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잔인한 기독교 박해자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며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666’이라는 숫자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로 해석된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각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네로

’6’은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666’은 불완전함이 반복되는 숫자로, 궁극적인 불완전함과 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반기독교적 세력과 제도를 상징한다.

신학자들은 ‘짐승의 표’를 물리적인 표식보다는 악한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해석한다. ‘666’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불의한 백성아, 돌아오라!

10월 7일~10월 13일
〈호세아〉 5:1~10:15



님은 선지자를 통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선지자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음란하고 교만한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러워진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한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을 받고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호세아는 이러한 백성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으셨어도 다시 낫게 하시고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힘써 알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면 결코 그분을 떠날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일삼으며 죄악의 길에 빠졌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묵상포인트 2: 혼합주의와 세속화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만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경고 메시지에 귀 기울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 지도자와 백성은 달궈진 화덕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거짓과 간음을 행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한 에브라임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만든 은금 우상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백성은 그 율법을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묵상포인트 3: 불순종은 은혜의 문을 닫고 저주의 문을 연다. 하나님은 형벌과 보응의 날을 예고하신다.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받는 위급한 때 성도는 속히 돌아야 한다.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진노의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지 묵상하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며 음행한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절기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는 형벌의 날

이 온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처럼 귀하게 여기셨으나 그들은 우상에게 몸을 바쳐 가증한 존재인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미워하셔서 그분의 집에서 쫓아내시고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을 허물고 징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목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주권자시다. 죄로 인해 고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적고 실천하자. ▶뜨겁게 달궈진 화덕처럼, 내 안에 감춰진 죄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내가 분별하고 멀리할 세속화의 유혹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율법)을 주셨다. 이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자. ▶풍요의 때일수록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중동을 위해서!

저는 이스라엘 국경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가고, 요르단의 하늘에서 요격된 파편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면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격 원점을 재타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이란 본토와 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늘에서 요격되는 미사일 소리에 떨리는 무릎과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그 누구라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복수를 부르는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뿌리 깊은 열등감과 미움, 상처와 증오를 품고 사는 아랍인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7개 전선(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시리아와 이라크민병대, 이스라엘 서안지구)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의 절박한 심정도 느꼈습니다. 그 어느 편도 미워할 수 없는 수백 년 뿌리 깊은 아픔을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부디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중동 땅의 영혼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해 3차 중동전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선교사

로잔 후속 세미나 '하나님의 동역자들'

목회자, 선교사, 리더십 500여 명 참석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제4차 로잔대회 후속세미나'.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이하 제4차 로잔대회) 후속 세미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지난 9월 30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목회자, 선교사, 지역 교회 리더십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로잔 후속 세미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환영사, 강의, 대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강의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핵심은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라면서 "교

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넬슨 제닝스 박사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데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섬김의 자리로 데려오신다"면서 "하나님의 데려오심을 경험하고 겸손한 자세로 귀히 쓰임 받는 한국 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대담 및 질의응답에서는 최형근 박사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

사,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넬슨 제닝스 박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이재훈 목사는 "제4차 로잔대회는 겸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겸손의 자세를 배우는 귀한 자리였다"면서 "한국 교회가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찬양으로 드리는 신앙고백'

10월 25일, 양재 권사콰이어 정기연주회

양재 권사콰이어가 가을밤을 찬양으로 물들인다. 양재 권사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5일(금)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양재 권사콰이어 단원들의 신앙고백이 담긴 찬양과 가곡, 영화음악 등을 연주한다. 정혜숙 권

사가 지휘하고, 이현주 권사가 반주한다. 크루스(CRUX)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재 권사콰이어 정기연주회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전화(010-3237-2854)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3237-2854

'I Have A Dream'

10월 28일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온라인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문화강연 'I Have A Dream'이 10월 28일(월)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최정주 권사(아트엔뮤직큐레이터, 이수공동체)가 강연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면 된다. 티켓은 3만 원(2인)이다. 10월 18일(금)까지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구매한 티켓은 강연 당일 접수데스크에서 수령하면 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I Have A Dream' 채팅창



"즐거운 성탄절을 선물해주세요!"

NGO 더멋진세상이 10월과 11월 '남수단 성탄 선물 캠페인'을 한다. 남수단 케세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200명에게 '성탄 선물 패키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탄 선물 패키지에는 옷과 학용품 등이 들어있

다. 남수단 성탄 선물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 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8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10월 5일(토)부터 11월 16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양재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0월 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그리고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228-5798

일본 선교 위한 '하이브리드반' 모집

일본 선교를 위한 글로벌일대일제자양육 교육프로그램 '하이브리드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5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저녁 8시 현장(10월 22일, 12월 3일) 및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된다. 대상은 일본어로 일대일제자양육이 가능한 성도, 2회 이상 일대일제자양육 경험이 있는 성도다. 참가신청은 10월 13일(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4528-5479

온라인커뮤니티 2024 하반기 개강

10월 8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돌봄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가 하반기 개강을 한다. 10월 8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여

성민 목사와 구혜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심성진 성도(온라인커뮤니티, 루마니아 거주)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성도들과 나눔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CGN 신규 프로그램 '빙하의 일각'

10월 2일 수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서 공개

CGN 신규 프로그램 '빙하의 일각'을 지난 10월 2일(수) 기독교 OTT '풍당'에서 공개했다. '빙하의 일각'은 <창세기>, <욥기> 등에서는 만나는 빙하시대와 현재 남아있는 빙하기 흔적을 살펴보고 진화론적 지식과 오류를 재점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조과학자 이재만 선교사와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미국으로 로드트립을 가서 직접 빙하기 흔적을 쫓는다. 빙하기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강의하고, 당시 역사와 지질학적, 성경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변증한다. '빙하의 일각'은 로드트립 4편, 야외수업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796-2243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10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오는 10월 21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동료와 함께 가곡을 즐기는 아주 특별한 자리다.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한다. 탤런트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은광이 공연한다. 강석우 집사가 작사 작곡한 곡도 공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3일(주일)까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좌석당 2만 원이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강석우' 채팅창



온누리 청년통일 행사 개최

10월 18일 오후 7시 서빙고 두란노홀

통일위원회 산하 통일선교팀에서 '온누리 청년통일 행사'를 개최한다. 10월 18일(금)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 북한선교 브리핑, 남북청년 토크콘서트, 탈북민 전도사 찬양특수, 청년

간증 등을 할 예정이다. 통일선교에 비전을 둔 청년, 통일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문자메시지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 010-7353-8211



양재 이웃사랑팀, '러브미' 봉사자 모집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서 '러브미' 사역을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러브미'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가져온 성미(粳米)와 재활용 가능한

헌 옷을 모아 서빙고온누리교회 나눔장터에 전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쌀을 구매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다.

문의: 010-3343-4842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